

사순 제 2주일

숲정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홍보국
인쇄	관리국

기도서 252면(A해)
 제1독서: 창세 12, 1-4a
 제2독서: II 디모 1, 8b-10
 복음: 마태 17, 1-9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교구청
 ☎ 0041 · 0042 · 0043

□강론



하느님 아들이 되는 영광은?

문정현 신부

예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아 죽게 될 것이며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당신의 앞날을 예시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 때는 안된다고 펼쳐뉘다.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취하는 베드로를 호되게 나무라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러한 충돌이 있을 후 예수께서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제자적의 자질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께서는 세 제자 앞에서 모습을 변하십니다. 하늘에서는 그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소리가 난다. 세례를 받으실 때를 제외하고 예수의 생애에서 아버지 하느님의 개입은 처음있는 일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이런 개입은 없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세 제자들에게 영광을 입으시는, 빛나는 하느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난다.

예수님의 영광스런 변모는 악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승리자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 모습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아 죽은 후에 버려질 장면이다. 이러한 사실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였다.

세 제자들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당신에게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도록 하겠다고 제의한다. 제자들의 물이해를 폭로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후에 모든이들로부터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으실 것이었다. 제자들은 고통과 죽음을 배제하고 하느님 나라로 질러가려는 원의를 가졌다.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장래에 이루어질 일이고, 십자가상의 죽음과 참된 삶의 필연적 연결을 주장하신 것이다.

(중앙성당 주임신부)



답답한 소리들

□국회가 열리자 갖가지 이야기들이 꽃을 피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학생들에 관한 기사가 넘친다. 무슨 이야기인지 쉽게 감이 잡히지 않는 대목도 있다. 두 신문의 지면을 옮기며 갑갑하다는 소리를 질러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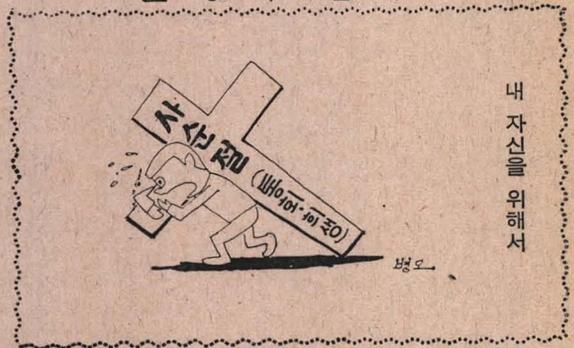
□학생 데모에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대부분 차단 당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은 최근 신문과 TV에서 보도되는 소위 좌경화(左傾化)에 관한 기사를 보고 한편으로는 놀라와 하고, 한편으로는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낸다. 학생 데모의 실상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그 주동자의 구속 기사만이 1단짜리로 간단히 보도되는 상황을 오랫동안 접한 사람들로서는 당연한 반응이 아닐 수 없다. (3월 10일자 조선일보 3면)

□좌경의 구체적 사례를 대고, 이데올로기 비판교육 및 이념교육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일부 복학 거부 학생에 대해 징집 영장이 나오고 있다는데 장관은 알고 있는가. 강제 입영된 숫자를 밝혀라. 강제 입영후 6명이 사망했다는데 진상을 밝혀라. 또 「녹화사업」이란 무엇인지 밝혀달라.

—현재의 학생동향과 과거의 학생동향은 유사한 점도 있으나, 정부비판을 벗어나 자유민주체제 자체를 비판하는 등 상당한 차이가 있다./학원사태관련 입영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는 없으며, 군입대자중 6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 못하다. (3월 13일자 동아일보 3면)

□「금기(禁忌)에만 급급한 사상(思想)의 미로(迷路)」라든가 「학원소요, 사회부조리 때문 아닌가」라는 거창한 제목이 붙은 두 신문의 기사를 읽어보니 정말 미로를 헤매는 눈뜬 장님이요 귀머거리 꼴이다. 좁은 지면인지라 간략하게 쓰다보니 읽는 사람은 더 답답하다. 언제나 유비(流言蜚語)통신 아닌 참 보도에 접하며 세상 돌아가는 속사정을 알게될꼬.

숲정이 산책



□동정 성모마리아께 대한

세계 봉헌 갱신식

교활성하께서는 금년 성모 영보 대축일에 동정 성모 마리아께 대한 세계 봉헌 갱신식을 거행하고자 하시며 각 교구에서도 같은 날 전 교회와 더불어 당신과 함께 봉헌식을 거행하라는 서한을 주교님들에게 보내 오셨다.

경애하는 형제 주교들에게

1983년 3월 25일에 우리는 구원의 특별 성년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날 여러분의 교구에서 구원 성년의 개막식을 거행함으로써 본인과 일치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모 영보 대축일은 전례력에서 인류 구원 사업의 시작을 상기시켜 주고 있으므로 구원 성년의 개막일로는 가장 적합한 날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년의 시작은 대림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탄생 제2000년을 바라보는 금년의 구원 성년 전체가 어떤 의미로는 대림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시대 2천년의 성취를 기다리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현대 세계 전인류의 곤경과 고통을 함께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으로부터 우리가 신앙을 쇄신하고 강화시켜, 구원자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 구원하시는 무한한 능력으로 다가서야 하는 특별한 요구가 일어나고 어떤 의미로는 그러한 내적 명령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워 인간과 화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해의 이치를 우리에게 말해 진하게 하셨습니다”(2코린 5, 19). 지난 10월에 개최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에서도 우리의 관심은 그 방향으로 모아졌습니다.

바로 오늘 성모의 원죄없으신 잉태 대축일에 교회는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여인의 잉태에서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현대 인류에 대한 위협, 죄악에 뿌리를 박고 있는 그 위협에 직면하여 우리는 성년의 맥락 안에서 구원의 능력에 보다 강렬하게 호소하여야 한다는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죄악을 극복하는 길이 회개를 통하여 가는 길이라 하면, 무한하신 구원 능력에 대한 신앙 고백 안에서 그 길은 시작되고 또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구원의 성년에, 본인은 여러분과 함께 전체 교회와 더불어 이 구원하시는 능력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각별하게 이러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셨던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티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을 통하여 구원 신앙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동봉하여 보내드리는 봉헌 기도는 1982년 5월 13일 본인이 파티마에서 성모님께 바쳤던 기도를 조금 수정한 것입니다. 구원의 성년 동안에 이러한 봉헌을 거듭하는 것은

(3면에 계속)

□사순절 묵상

그리스도인의 하루 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그리우면서도 어찌지 두려움마저 드는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한걸음 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허무한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기에 한번 지나가 버릴 생을 마음껏 누려보자는 낙천주의자들이 있는가 하면 인생의 허무함을 슬퍼하며 절망 속에서 시름하는 염세주의자들도 있는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행업에 힘입어 새 사람이 되었고, 인생의 비길 수 없는 가치와 풍성한 열매를 그분 안에서 거둘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살아 갑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를 향해가는 나그네의 삶이라고들 말합니다. 나그네가 이곳저곳을 지나고 수없이 많은 환난을 겪은 후 목적지에 도달하듯이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지금은 비록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버림받고, 고독할지라도 언젠가 한번은 모든 것을 내려보고 싶어하는 심정은 인간에게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약속하신 하늘나라에서의 참된 행복을 영원하기에 희망찬 기다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위해 결정적인 문제는 ‘오늘’인가 봅니다.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 새날을 주신 주님께로 마음을 향하며 주님의 도움없이 아주 작은 선을 행함도 불가능하다는 인식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합니다. 허나 우리의 나약함이 때로는 가슴이 미어지고 가련한 마음조차 찾아드는 순간이 오는 듯 합니다. 물질명명이 고도로 발달되어 안위한 삶을 살 수 있을지언정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음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라도 미사성체를 통한 초자연적 힘으로 하루를 보낸 바랍적하리라 생각됩니다. 미사중에 우리는 예수님과 결합하여 성부께 오류이 자신을 바칩니다. 성체를 모신 그 순간엔 마치 한방울의 물이 대양 깊숙이 들어가 그 자취를 감춰버리듯 사랑의 바다이신 하느님 속으로 융화되어 버립니다.

예수님을 모신 찬미하고 기쁨에 넘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그분 안에 머물며 변화와 성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자신이 어느 정도 이를 깊이 깨닫고 그 열매를 맺느냐는 과제가 남을 뿐입니다.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나누시고자 하십니다. “내 안에 머무시는 자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요한 15, 5)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작은 영혼의 궁전 속에 머물고 계십니다.

<성 글라라 수녀원 제공>

□마출 · 대여□

신 부 의 집

*웨딩드레스 · 연주복 · 비더오촬영 · 페백의상 · 신부부케 · 야외촬영

판릉도로 서울신탁은행 앞

☎ 6951

정 인 기 (논지도)

학원생 수시 모집(주·야)

철저한 개인지도

V. T. R로 산 교육화

현대 미용학원

전주시서노동동(중앙성당앞)

원장 : 김 데레사(금순)

☎ 9206 · 5289

신규 직원 채용

1. 모집부문 : 일반직 (여 ○명)
2. 자격 : ①고졸이상 학력소지자
②1963년~1967년 사이 출생자
3. 전형방법 : ①서류전형 ②면접 ③논문
4. 제출서류 : ①자필이력서 (사진 부착) ②신원증명서 ③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④주민등록 초본 ⑤자격증 사본 (소지자에 한함)
5. 제출기한 : 84. 3. 24 오후 4시
6. 전형일시 : 84. 3. 25 오후 1시
7. 전형장소 및 접수처 : 당조합 사무실 총무과
③3494 · 2444 삼례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배정환

전주교구 200주년 기념
사 순 절 대 강 연 회

— 때 : 24일(토) 오후 7시 30분
— 곳 : 전주 중앙성당
— 주제 : 오소서, 주 예수여

(이 병호 신부님)

□ 성모 마리아께 온 세계를 봉헌하는 특별기도회

교구에서는 교황 성하의 호소에 따라(2면 참조) 각 본당과 수도단체에서 24일(토)이나 25일(주일)에 특별 봉헌 예식을 거행하여 성모의 밤이나 미사 중에 특별 강론과 함께 교황 성하의 봉헌 기도문을 함께 바치도록 하였다.

□ 제 3 지구 단체 지도신부, 사순절 강연회

제 단체 지도신부

헤시오 마리아-김 종택 신부

교리교사-박 진량 신부

대학생회-박 진량 신부

근로자의 집-박 진량 신부

비행장-이 제후 신부

묘지관리-김 환철 신부

꾸르실로-김 환철 신부

중·고학생회-박 창신 신부

교도소-김 환철 신부

농민회-박 창신 신부

M.E-이 제후 신부

사순절 강연회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3월 16일-대 야(이 제후 신부)

4월 6일-월명동(박 진량 신부)

30일-둔율동(김 종택 신부)

13일-팔 마(박 창신 신부)

23일-오룡동(김 환철 신부)

□ 사순절 영화 안내

제목 : 구세주(총천연색, 상영시간-1시간 30분)

최후만찬부터 예수님의 수난 부활에 이르기까지 성서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대여비-도시 본당 3만원, 그의 본당 2만원

□ 새로 나온 책

가정-사랑과 생명의 터전-교황님들의 말씀

가정이 편안할 때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책은 현대의 교황님들이 가정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들려주신 말씀을 엮었다.

가격-3천원

(2면에서 계속)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새롭게 증거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대와 일치하는 것이라곤 본인은 깊이 확신하는 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의 수많은 곤경 속에서 체험하는 그들의 슬픔과 미래를 뒤덮고 있는 위협의 공포를 성모님께 맡겨 드리하고자 열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와 모든 나라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해온 그들의 열정을 성모님께 바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 증거를 위해서는 1984년 사순절에 맞는 성모 영보 대축일이 가장 적합한 날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께서 적절한 방법을 택하시어 그날 본인과 더불어 이러한 봉헌식을 거행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형제애 안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요심이(554) 김병호

전주교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치교구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정부부 이누갈다의 묘지가 있으며

교회사적으로 의의가 많은곳인데 왜 교황님이 전주에는 안 오십니까?

교황님이 광주에갈때 전북땅을 지나가니 가시는것과 같소!

성심여고 일반직(사무과)

직원 채용 공고

1. 채용인원 : 남·여 약간명
2. 서류 제출마감 : 84년 3월 18일~3월 23일까지
3. 제출서류 : 이력서
최종출신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병역증명서(남)
4. 자격증 : 주산 부기 타자

성심 여자 중고등학교장

특수자연시 컴퓨터를 설치한

보안당 센터

가볍고, 얇고, 원근조절 렌즈, 김 안서리는 렌즈로 여러분의 마음을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전주구역전오거리 ☎ 3-3032

마 기 환 안 과

원장 : 전문의 마 기 환
장소 : 팔달로변 불세다방 2층

전화 75-2203

한 남희(비리시타)

개업 : 3월 17일

신속배달 설비시설
한국 가스 상사

☎ 3-1457·72-0612

김 성 두(토마스)

이 미 자(안젤라)

성심 여중 고

동창회 회관 낙성식

3월 25일(주일) 오후 2시

동창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4) 순 정 이



1. 장애자(하사회 모임): 18일 오후 2시, 장소-센타 교육관
 2. 군옥지구 베소라 성서: 매주 목요일, 낮반-오후 2시~4시, 밤반-7시30분~9시30분, 장소-문율동 성당
 3. 여섯 제16차 푸르실로 동창회: 23일 오전 10시, 장소-센타 강당
 4. 혼인 법륜: 26일 오전 10시, 장소-교구청
 5. 성직자·수도자 200주년 정신운동 연수회: 30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센타, 대상-모든 신부님·수녀님, 참가비-2천원
- **축!** 영명: 성 요셉 (19일)-김 종택·안 복진·배 영근·유 장훈·정 승현·나 궁열·김 순태·조 정오
장 덕행·서 광석 신부님

제 1 지구 각 분당 소식 ①

(중앙)

전화 ⑥1711~3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안철민
사도 회장 김인협

1. 사순절 특별강연회: 17일 오후 7시30분, 중앙성당
시대적 징표와 우리의 과제-최기복 신부
 2. 성시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3. 판공성사 일정: 4월 10일-교사·경원·중노·금암, 11일-태평, 12일-서노·진복, 13일-인후, 14일-학생·기타, 시간-오전 10시~12시, 오후 7시~9시
 4. 부활반 종합교리: 4월 3~4일(2일간) 저녁 7시30분
장소-강당, 면접-5일 오전 10시, 오후 7시30분
 5. 제2기 가나강좌: 17일부터-오후 7시~9시, 장소-센타 3층, 대상-미혼남녀(기혼자 가), 수강료-3천
 6. 애령회 정기총회: 18일 공식미사 후
 7. 고등학생회 신입생 환영식: 18일 학생미사 후, 강당
 8. 성로신공: 매주 금요일 어머니미사 후, 찻주, 마지
팍주 공식미사 후
 9. 벽돌봉헌: 9,712장
 10. 광주 방한 티켓: 본당 사무실에서, 1인당-4천원
- **지난주 봉헌금:** 1,110,666원 **교무금:** 648,300원
특별헌금: 김보니카·양옥자-각 5천원(감사헌금)

(노송동)

주임 신부 김용태
신부 ⑥0969 보좌 신부 나춘섭
수녀 ⑥7032 사도 회장 이홍재

1. 가정방문 일정: 21일-중노1가 4구역, 22일-중노1가 6구역, 23일-중노2가 1구역
 2. 참 부모가 되실래: 4월 5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본당 부부퍼져, 참가비-5천원, 신청순 30쌍
 3. 공소회장단 회의: 20일 오후 3시, 왕정리 공소에서
 4. 환자봉선체: 20일 오후 3시, 사무실에 접수하세요
 5. 중·고생 교리: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많은 참여를
 6. 사도회 및 건축추진위원회 연석회의: 차주 공식미사 후
 7. 교무금 납부의 날: 교무금은 매월 분납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419,590원 **교무금:** 234,500원

(덕진)

주임 신부 김봉희
전화 수녀(72)1222 보좌 신부 정양현
사무(72)6259 사도 회장 양상열

1. 오늘 모임: 성모회(9시 미사후), 반석회(공식미사후)
 2. 선교분과위원회: 21일 저녁미사 후
 3. 구역 사목방문: 20~22일-금암동, 27~29일-덕진동, 4월 3~4일-팔복동, 10~12일-송천동, 공소
판공일정-3월 30일-내동리공소, 4월 6일-미산리
공소, 13일-전당리공소, 동산촌은 별도
 4. L.M 아치에스행사: 다음주일(25일) 오후 2시
당일 아동미사는 유치원에서 봉헌할
L.M단원 피정-29일 저녁미사 후
 5. 금주 분당총사: 전복회 성신부녀회(24일 3시)
 6. 다음주일 행사(25일) 안내
·교회 도서전시 및 출판물 보급(까리마스 자모회)
·불우이웃돕기 자선 1일 찻집(모이세회)
- **지난주 봉헌금:** 685,851원 **교무금:** 411,000원

(복자)

전화 ⑥5238번 주임 신부 권영균
사도 회장 김성원

1. 성시간: 22일 저녁 7시
2. 십자가의 길 기도: 매 금요일 저녁미사 후(금육)
3. 성요셉 대축일: 19일 오전 10시 어머니미사
4. 성모영보 대축일: 25일
5. 피미시움: 오후 2시 전통성당, 꾸리아 간부 참석
6. 자모회: 내일(19일) 어머니미사 후
7. 대학생 모임: 매 수요일 저녁 7시
8. 수녀원 헌금: 미남자 완납바람, 미신입자 신입 바람
9. 금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이상기 ②정운주

차주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정동민 ②은희영
□ **지난주 봉헌금:** 121,085원 **교무금:** 504,100원

(서학동)

주임 신부 김동준
수녀 ⑥2276번 사도 회장 김낙균

1. 할머니회: 오늘 공식미사 후, 「성모회」로 명칭 변경
 2. 중·고생 미사시간 변경: 25일부터 일요일 저녁 7시
 3. 중·고생 성지순례: 다음주(25일), 천호·여산 성지
 4. 매주 금요일 저녁미사 후: 「십자가의 길」 많은 참여
 5. 사목방문: 13번(21~23일), 환자 방문-매월 3째주
목요일 오후 3시, 구역장은 주지하셔서 연락 바람
 6. 유아세례: 매월 3째주 목요일 10시 미사후
 7.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김한기 ②함문권
- **지난주 봉헌금:** 351,435원 **교무금:** 150,000원

(순정이)

전화 ⑥7366 주임 신부 김종길
수녀 ⑥9567 사도 회장 김수겸

1.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봄 판공일정: 4월 4일부터 시작 ※ 각구역 판공일정은 일정표를 참조하고 참고 시험지는 해당일에 지참
 3. 십자가의 길: 사순절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미사 후와, 일요일 공식미사 후
※미사시간 변경-19일부터, 새벽미사-6시(일·월)·수요일(어머니미사) 10시, 저녁미사-7시30분(화·목·금), 토요일-7시
 4. 금주전례: 해설-이철수, 독서-①정주복 ②허옥순
기도-정주복·허옥순
차주전례: 해설-이철수, 독서-①이규철·유희자
기도-이규철·유희진
- **지난주 봉헌금:** 231,270원 **교무금:** 375,100원
성가대 의자: 익명 1백만원 **200주 헌금:** 214,970원

(전동)

주임 신부 김치삼
전화 사무 ⑥3222 보좌 신부 박찬길
수녀 ⑥8347 사도 회장 김병오

1. 성화회: 공식미사 후
 2. 글라라 형제회: 다음주 오후 1시30분
 3. 십자가의 길: 사순절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미사 후
 4. 미사시간 변경(12일부터): 아침미사-6시, 학생미사-8시30분, 공식미사-10시, 어린이미사-오후 3시
저녁미사-7시30분
 5.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이주영, 독서-①김동연 ②최정신
공식미사: 해설-이주철, 독서-①안득수 ②고수창
저녁미사: 해설-김윤주, 독서-①이훈 ②최원일
- **지난주 봉헌금:** 900,000원 **교무금:** 852,500원
200주년 기념금: 839,240원

(호자동)

주임 신부 박종신
전화 수녀 ⑥0915 사도회장 황희상

1. 예비자 교리교육(계회): 화요일(저녁 8시)-본당신부님, 수요일(오후 2시)-김수녀님, 목요일(오전 10시30분)-신수녀님, 토요일(오후 4시)-교수녀님, 일요일(공식미사 후)-신수녀님
 2. 축! 자모회(주일학교) 탄생: 회장-이민희
 3. 수요성서⑥: 창세기 27-36장 야곱과 에사오
 4. 본당신부 사목방문: 21 효자동1가 남은부분
 5. 아치에스행사: 25일 오후 2시 정가
 6. 성지 이스라엘-슬라이드 상영: 25일 저녁미사 후
 7. 유아세례: 다음주일 오후 4시
 8. 성령 세미나: 27일부터 신청받음
 9. 차주전례: 기도-선교분과위원장·차장
독서-①김효문 ②임영순
- **200주년 헌금:** 331,210원 **교무금:** 277,100원
미수금: 75,000원